

보도 일시	2021. 12. 21.(화) 09:00	배포 일시	2021. 12. 21.(화) 09:00
담당 부서	문화예술정책실 예술정책과	책임자	과장 이은복 (044-203-2711)
		담당자	사무관 채창렬 (044-203-2710)

국민 문학 독서율 43%, 평균 문학 독서량 2.3권 - 2021 문학 실태조사(2020년 기준) 결과 발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원장 김대관)과 함께 2020년을 기준으로 ‘2021 문학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문학진흥법」 제6조에 따라 문학인의 창작환경과 문학관, 문학단체의 현황, 국민의 문학향유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문학진흥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했으며, 문학인 2,026명, 만 15세 이상 일반 국민 2,000명, 전국 106개 문학관, 전국 202개 문학단체를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2021년 9월 28일부터 11월 16일까지 진행했다.

※ 문학 실태조사 개요

- (조사 개요/목적) 「문학진흥법」 제6조에 따른 법정조사 / 문학진흥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해 문학 창작환경 및 문학향유 등 현황에 관한 기초자료 수집
- (조사 기간/방법) '21. 9. 28.~'21. 11. 16. / 온라인 조사
- (조사 표본) ▲ (문학인) 2,026명, ▲ (국민) 2,000명, ▲ (문학관) 106개, ▲ (문학단체) 202개

국민의 문학 독서율 43%, 평균 문학 독서량 2.3권,
문학도서 구매 경험률 34%, 평균 구매량 1.3권

조사 결과, 지난 2020년 국민의 43%가 문학 독서 경험이 있었고, 평균 문학 독서량은 2.3권으로 조사됐다. 특히 연령대가 낮을수록, 월평균 소득이 많을수록 독서 경험률이 높았다. 문학 독서 경험의 매체별 비율은 ‘종이책’이 40.9%로 가장 높았으며 ‘전자책’이 10.9%, ‘소리책(오디오북)’이

5.2%로 뒤를 이었다. 다만, 전자책의 경우 10대, 20대가 60대 이상보다 10배 이상 높게 나타나 연령대에 따라 문학 도서 매체의 다양화 추세가 달라짐을 보여줬다. 문학 독서를 하지 않는 이유로는 1위 ‘시간 여유가 없어서(35.7%)’, 2위 ‘문학책이 흥미롭지 않아서(30.6%)’, 3위 ‘적합한 문학책을 고르기 어려워서(13.4%)’가 꼽혔다.

문학도서를 구매한 경험이 있는 국민은 34%로, 학력이 높을수록 구매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평균 구매량은 1.3권으로, 전년 대비 문학도서 구매량이 ‘감소했다’는 응답(29.9%)이 ‘증가했다’는 응답(10.3%)보다 약 3배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학인의 주요 창작 분야는 시, 소설, 수필 순, 창작 과정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 요인’

문학인들이 창작하는 분야는 ‘시’가 39.6%로 가장 많았으며, ‘소설’이 24.2%, 수필이 12.6%로 뒤를 이었다. 다만 40대 이하의 경우 ‘시’보다 ‘소설’이 더 높게 나타나 연령대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출판 매체의 경우 ‘종이책’이 89.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전자책’과 ‘인터넷 콘텐츠’ 활용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역시 연령대에 따른 변화 추세를 보여줬다.

문학 작가 외의 직업을 보유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은 58%로 전업 작가라고 응답한 비율 42%에 비해 높았다. 전업 작가의 경우에도 29%가 창작 활동 외 경제활동을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창작활동 외 경제활동을 한 이유로는 ‘경제적 어려움’이 75.2%로 1순위를 차지했다. 조사에 참여한 문학인의 84%는 문학 활동을 통해 100만 원 이하의 수입을 얻고 있다고 응답했다.

정부 정책에 대한 문학인 평가 ‘긍정적’ 43.3%, ‘부정적’ 11.4%, ‘창작활동 지원’ 정책이 가장 중요

정부의 문학진흥정책 기여도에 대한 문학인들의 평가는 예전에 비해 높아졌다는 응답이 43.3%, 변화 없다는 응답이 45.3%, 낮아졌다는 응답이 11.4%로, 긍정적인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정부의 정책에 대한 중요도 평가는 ‘창작활동 지원’이 72.4%로 가장 높았으며, ‘창작 안전망

구축'이 15.9%. '권리 보호'가 6.4%로 뒤를 이었다. 다만, 연령대가 낮을 수록 '창작활동 지원'에 대한 중요도 평가는 낮아지고, '창작 안전망 구축'과 '권리 보호'에 대한 중요도 평가는 높아져 연령대에 따른 정책 인식의 변화가 나타났다.

문학관 방문 경험 있는 국민 10.8%에 불과, 문학관 간 역량 차이 커

문학관 방문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10.8%로, 방문 경험이 없는 응답자(89.8%)가 약 9배 가까이 높았다. 문학관을 방문하지 않은 이유는 '시간이 나지 않아서(28%)', '문학관이 있는지 몰라서(20.15)', '거리가 멀고 교통이 불편해서(18.1%)'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문학관 간 설립 주체에 따라 역량 차이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의 평균 수입은 각 2,500만 원, 2,250만 원이었으나 개인, 단체의 경우 각 200만 원, 970만 원이었다. 평균 종사자 수 역시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의 경우 각 4.8명, 3.8명이었으나 개인, 단체의 경우 각 1.7명, 2명으로 격차를 보였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문학계 현황을 자세히 파악한 이번 조사를 향후 문학진흥정책 수립과 시행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상주 작가 지원’, ‘우수문학도서 보급’ 등 문학인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등을 통해 문학 향유 기반시설을 구축해 국민의 문학 향유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문학관, 문학단체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더욱 실효성 있는 문학진흥정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2021 문학 실태조사 개요
- 2. 국민 문학향유 실태조사 결과 요약
- 3. 문학인 실태조사 결과 요약
- 4. 문학관 실태조사 결과 요약
- 5. 문학단체 실태조사 결과 요약



□ **조사 개요**

- (조사 배경) 「문학진흥법」 제6조(실태조사)에 따른 법정조사로, 동법 시행령 제3조(실태조사의 내용 등)에 따라 3년 주기로 실시
- (조사 목적) 문학진흥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해 ①문학인의 창작환경, ②국민 문학향유, ③문학관·④문학단체 현황에 관한 기초자료 수집

□ **조사 모집단 및 표본**

○ **문학인**

- (조사 모집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예술인복지재단 소속 문학인 12,432명
- (표본) 장르, 성별, 연령대로 층화하여 2,026명의 표본 구성

구분	성별			연령					
	남성	여성	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계
응답자 수	896 (42%)	1,130 (58%)	2,026 (100%)	102 (5.5%)	314 (13.2%)	390 (12.5%)	542 (23.1%)	678 (45.6%)	2,026 (100%)

○ **국민**

- (조사 모집단) 온라인 패널로 활동 중인 만 15세 이상 일반 국민
- (표본) 성별, 연령대, 거주지로 층화하여 2,000명의 표본 구성

구분	성별			연령						
	남성	여성	계	15-19세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계
응답자 수	1,005 (49.7%)	995 (50.2%)	2,000 (100%)	191 (5.4%)	320 (14.7%)	319 (14.7%)	352 (18%)	369 (18.8%)	449 (28.2%)	2,000 (100%)

○ **문학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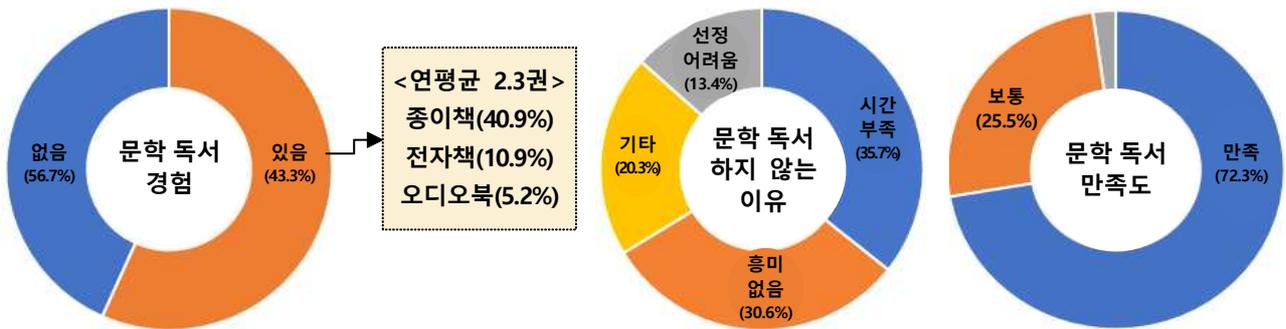
- (조사 모집단) 전국 공·사립 문학관
- (표본) 중복 및 운영 중단을 제외한 전국 106개 문학관

○ **문학단체**

- (조사 모집단) 문체부 및 17개 광역 지자체에 등록된 문학 관련 비영리법인
- (표본) 전국 202개 문학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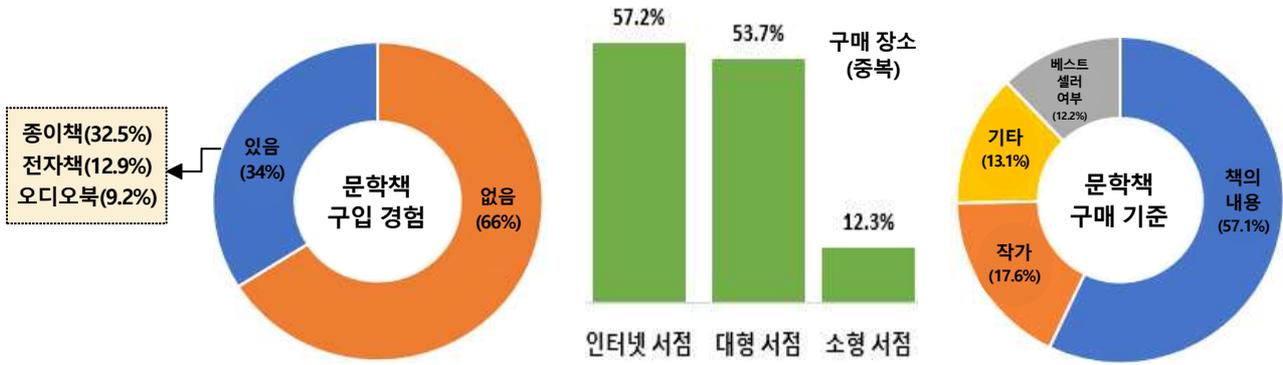
□ 문학 독서

- (문학 독서경험) 독서경험 있음 43.3%, 평균 문학 독서량 2.3권
 - 연령대가 낮을수록, 월 평균 소득이 많을수록 문학 독서경험이 높아지는 추세가 나타남
- (문학 독서 매체별 비율) 종이책(40.9%) > 전자책(10.9%) > 오디오북(5.2%)
 -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모든 매체에서 문학 독서율이 상승하며, 특히 전자책의 경우 10대, 20대가 60대 이상에 비해 10배 이상 높게 나타나 세대에 따른 독서 매체의 변화 추세를 보임
- (문학 독서를 하지 않는 이유) 시간이 없어서(35.7%) > 문학책이 흥미롭지 않아서(30.6%) > 적합한 문학책을 고르기 어려워서(13.4%)
- (독서 만족도) 만족(72.3%) > 보통(25.5%) > 불만족(2.2%) 순으로, 문학 독서에 만족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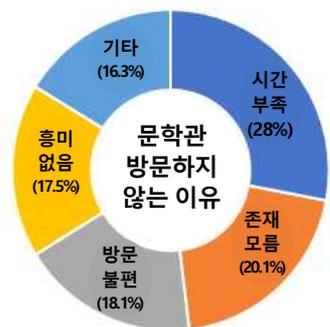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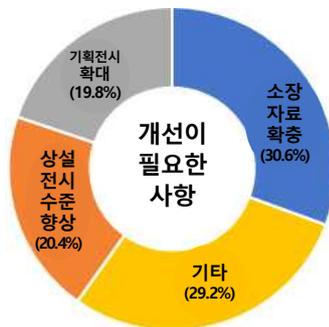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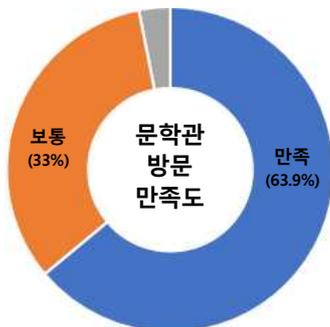
□ 문학도서 구매

- (문학도서 구매 경험) 구매 경험 있음 34%, 평균 구매량 1.3권
 - 학력이 높을수록 구매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전년 대비 문학도서 구매량이 감소하였다는 응답(29.9%)이 증가(10.3%)에 비해 약 3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매체별 구매 경험) 종이책(32.5%) > 전자책(12.9%) > 오디오북(9.2%)
- (구매 장소) 인터넷 서점(57.2%) > 대형 서점(53.7%) > 소형 서점(12.3%)
- (구매 기준) 책의 내용(57.1%) > 작가(17.6%) > 베스트셀러 여부(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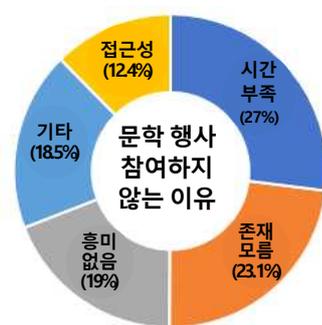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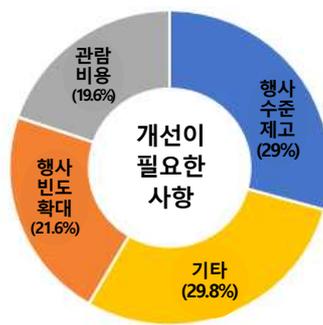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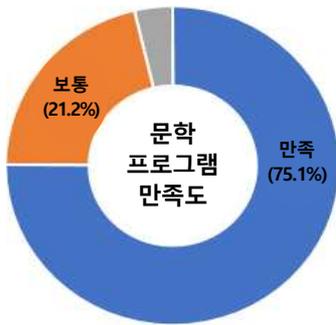
□ 문학관 이용

- (방문 경험) 없음(89.2%)이 있음(10.8%)에 비해 8배 이상 높게 나타나, 문학관 이용 경험이 매우 저조한 것을 알 수 있음
 - 작년 대비 방문 횟수 변화가 줄었다는 응답(35.1%)이 늘었다는 응답(3.4%)의 10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남
- (방문 만족도) 만족(63.9%) > 보통(33%) > 불만족(3.1%)
- (보완점) 소장자료 확충(30.6%) > 상설전시 질적 수준 제고(20.4%) > 기획전시 증대(19.8%) 순으로 나타나, 전시의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 모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됨
- (방문하지 않은 이유) 시간 부족(28%) > 문학관 존재를 몰라서(20.1%) > 문학관 방문이 불편해서(18.1%) > 문학관에 흥미가 없어서(17.5%) 순으로 나타나, 문학관 활성화를 위해 문학관 홍보가 필요



□ 문학행사 참여

- (참여 경험) 없음이 92.1%로, 문학 행사 참여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전년대비 참여 횟수가 줄었다는 응답 비율이 35%로, 늘었다는 응답 비율 2.9%를 훨씬 상회함
- (참여 만족도) 만족(75.1%) > 보통(21.2%) > 불만족(3.7%)
- (보완점) 행사 수준 제고(29%) > 행사 개최 빈도 증가(21.6%) > 관람 비용 문제(19.6%)
- (참가하지 않은 이유) 시간 부족(27%) > 문학행사 존재를 몰라서(23.1%) > 문학행사에 흥미가 없어서(19%) > 거리·교통 문제(1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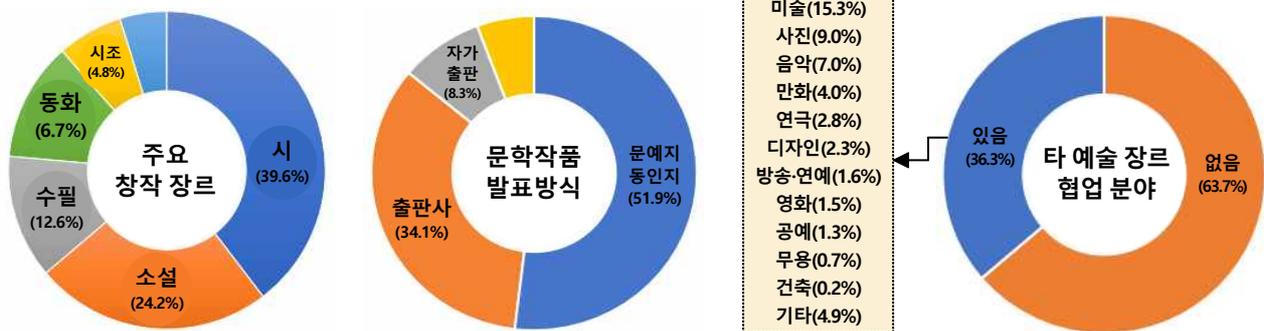


□ 문학 정책

- (문학향유를 위해 필요한 정책) 정규교육 내 문학 수업 강화(42%) > 생애주기별 문학교육 확대(26.9%) > 공공문화시설 서비스 개선(2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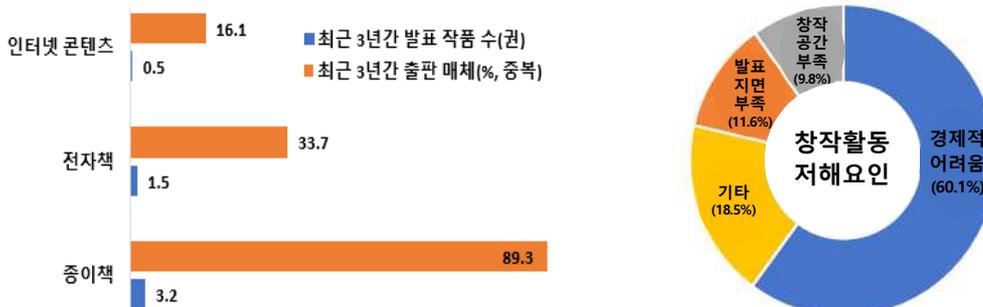
□ 기본 현황

- (창작 장르) 시(39.6%) > 소설(24.2%) > 수필(12.6%) > 동화(6.7%)
- (창작·발표 현황) 종이책(3.2권) > 전자책(1.5권) > 인터넷 콘텐츠(0.5권)
- (발표 방식) 문예지·동인지(51.9%) > 출판사(34.1%) > 자가 출판(8.3%)
- (타장르 협업) 협업 경험 있음(36.3%)
 - 미술(15.3%) > 사진(9%) > 음악(7%) > 만화(4%) > 연극(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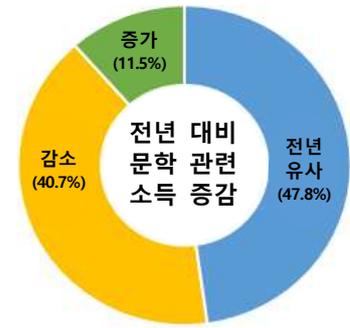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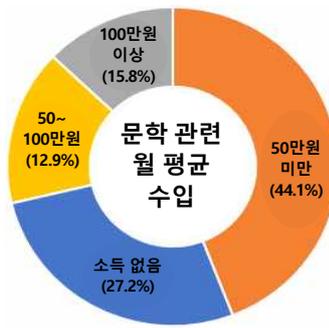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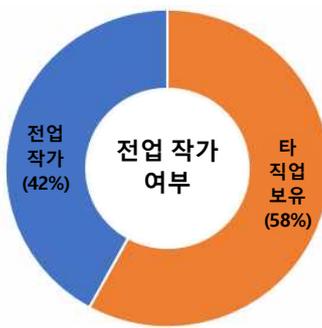
□ 창작활동

- (출판 매체) 종이책(89.3%) > 전자책(33.7%) > 인터넷 콘텐츠(16.1%)
 - 최근 3년간 조사 결과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전자책*과 인터넷 콘텐츠** 활용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 9.9%(60대 이상) → 17.1%(50대) → 40.8%(40대) → 58.4%(30대) → 72%(20대 이하)
 - ** 6.7%(60대 이상) → 10.7%(50대) → 16.9%(40대) → 21%(30대) → 23.3%(20대 이하)
- (저해 요인) 경제적 어려움(60.1%) > 발표지면 부족(11.6%) > 창작공간 부족(9.8%)
 - 창작활동 증진을 위해 문학인의 경제적 여건 개선뿐만 아니라 관련 인프라 조성 역시 시급한 과제인 것으로 나타남



□ 창작여건

- (전업 작가 여부) 문학 외 직업 보유(58%) > 전업 작가(42%)
 - 전업 작가의 경우에도 '창작활동 외 경제활동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29%였으며, 그 이유로 '경제적 어려움'이 1순위(75.2%)
 - 문학 외 직업을 보유한 경우, 창작활동에 전념할 의향이 낮은 이유로 '경제적 어려움'이 1순위(63.8%)
- (문학 관련 수입) 50만 원 미만(44.1%) > 없음(27.2%) > 50~100만 원(12.9%)
 - 특히 전년대비 감소하였다는 응답이 40.7%이며, 코로나19 상황이 수입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은 82.6%로 나타남



□ 문학 정책

- (중요도) 창작활동 지원(72.4%) > 창작 안전망 구축(15.9%) > 권리 보호(6.4%)
 -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창작활동 지원' 응답 비율은 낮아지고 '창작 안전망 구축'과 '권리 보호' 응답 비율은 높아지는 모습이 나타남
- (기여도) 변화 없음(45.3%) > 기여도 증가(43.3%) > 기여도 감소(11.4%)
 - 순으로, 정부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 창작활동 지원
 - 문학창작 기금 지원, 문학작가 일자리 창출, 우수문학도서 선정보급, 창작집필공간 지원 등
- ▶ 창작 안전망 구축
 - 창작준비금 지원, 생활 안정자금 지원
- ▶ 문학인 권리보호
 - 권익 보호 교육지원, 예술인 신문고 운영, 예술인 성폭력 피해 지원 및 예방 교육



붙임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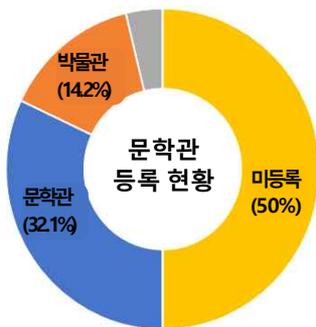
문학관 실태조사 결과 요약

□ 문학관 현황

구분	공/사립			설립·운영 주체				
	공립	사립	계	지자체		개인	비영리 법인/단체	계
				직영	위탁			
전국 문학관 수	75 (61%)	48 (39%)	123 (100%)	47 (38.2%)	27 (22%)	33 (26.8%)	16 (13%)	123 (100%)
설문 참여 문학관 수	68 (64.2%)	38 (35.8%)	106 (100%)	42 (39.6%)	25 (23.6%)	26 (24.5%)	13 (12.3%)	106 (100%)

□ 주요결과

○ (기본 현황) 문학관 등록률 저조, 문학관 간 역량 차이 현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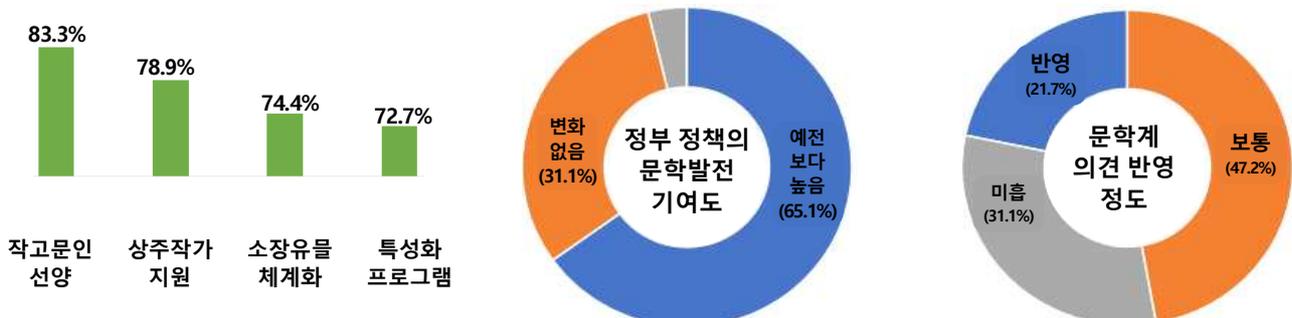


구분	설립주체				
	지자체	비영리법인	개인	단체	
공간	147.8평	108.7평	37.5평	11.5평	
재정	수입	25백만원	22.5백만원	2백만원	9.7백만원
	지출	32.6백만원	22백만원	2.5백만원	9백만원
인력	4.8명	3.8명	1.7명	2명	
	정규직 2.2명 학예사 0.4명	정규직 2.6명 학예사 0.7명	정규직 0.3명 학예사 0.3명	정규직 0명 학예사 0명	
자료	3,996점	18,727점	15,050점	1,250점	

○ (전년 대비) 방문객 수 66% ↓, 프로그램 운영횟수 46% ↓, 참가가 수 64% ↓



○ (정책 인식) 정책 참여만족도 ↑, 정부정책 기여도 ↑, 문학계 의견반영 ↓



붙임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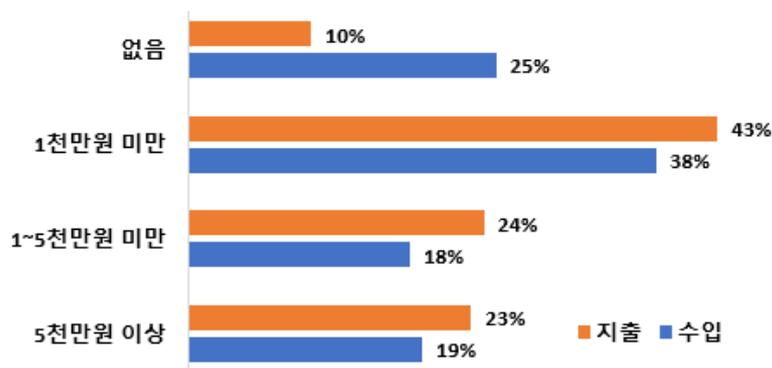
문학단체 실태조사 결과 요약

□ 기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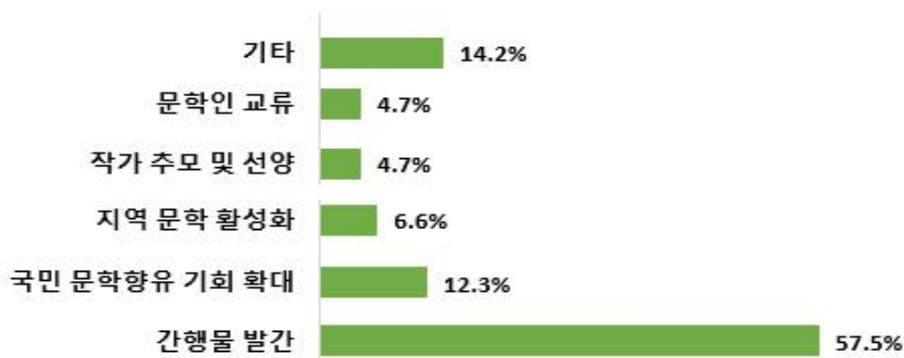
- (회원 수) 20~99명(34%) > 1~29명(24.5%) > 100~299명(19.8%)
- (인력 현황) 직원 없음(49.1%) > 1~2인(19.8%) > 10인 이상(18.9%)

□ 주요결과

- (재정 현황) 평균 수입 약 7,700만원, 평균 지출 약 8,300만원



- (사업 현황) 간행물 발간(57.5%) 위주 사업 운영, 전년대비 사업 운영 횟수 및 예산 감소 추세



- (정책 인식) 정책 참여만족도↑, 정부 정책 기여도↑

